

한라시론



주현정
제주연구원 지속성장연구실 부연구위원

추석 연휴가 지났지만 지역 상권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다. ‘임대’ 중인 빈 점포들이 늘고, 화요일마다 오는 순대트럭 아저씨는 낮에는 우동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직원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일을 한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할인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 이자지원 등 민생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은 관광객 수 감소, 소비심리 악화로 제주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의 소비심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는 진짜 이유

리를 위축시키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가처분소득의 감소이다. 2024년 제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461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고 전국 평균 2783만원에도 못 미친다. 부채 부담도 크게 올해 5월 제주의 가계대출 잔액은 15조 9882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1% 증가하였다. 특히 5월 증가액 1454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47억원에 그쳤으나 기타 가계대출은 1408억원으로 주택 구입보다 신용대출 등 생활자금 성격의 차이가 증가했다. 예금은행 연체율도 1.11%로 전국 평균 0.67%에 비해 높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1.24%로 기업대출 1.09%에 비해 높다. 여기에 소비자물가는 2.9%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부채 및 원리금 상환 부담과 생활물가 상승은 가계의

소비 지출 여력을 제약한다.

둘째,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이다.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층은 부모와 자녀를 더블케어하는 ‘샌드위치 세대’이다.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자녀를 떠받치는 동안 자신을 위한 소비 감소뿐 아니라 노후 준비도 어렵다. 주요 노후 정책인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를 9%, 소득 대체율 40% 체제로, 40년간 월소득의 9%를 보험료로 지불하면 은퇴 전 소득의 40%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이 시작한 1988년 보험료를 3%, 소득 대체율을 70%였던 해택이 축소되고 2055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전적으로 연금에 미래를 맡기는 어렵다. 실제 제주지역의 연금 가입률은 82.6%로 높으나, 65세 이상 도민의 월평균 전체 연금 수금액은 72만4000원에 불과하다. 노후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오늘의 소

비를 줄여 내일을 대비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예비적 저축’이다.

결국 소비 부진은 현재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미래소득의 불안이 겹친 결과다. 이 구조적 위축을 풀려면, 해법은 두 축이어야 한다. 현재를 받치는 기본소득, 미래를 받치는 도민연금이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당장 쓸 여력을 넓히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그 금액은 지역 상권으로 돌아간다. 도민연금은 국민연금의 빈틈을 메우는 보완 장치로, 도민 적립에도가 매칭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나 개발이익금을 기금에 더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제주의 바람과 햇빛이 도민의 노후가 되는 셈이다. 현재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미래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소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경제정책이다.

사설

구멍 뚫린 제주 해안, 소형선박 밀입국 무책

제주 해안 경비에 구멍이 뚫렸다. 제주로 밀입국하는 소형선박을 광역레이더가 탐지 못해 언제든 밀입국 시도가 재현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사실은 더 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중국발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밀입국·밀입국 시도는 9건에 걸쳐 인원은 44명이다. 이 중 해안초소·감시망에서 탐지된 것은 3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주민 신고나 불법체류자 단속, 다른 사건 연루, 표류선박 발견 등을 통해 적발됐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한 소형선박 밀입국 사건 2건은 해상에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광역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중국 난통에서 출발한 중국인 6명은 약 16시간을 항해해 제주 환경면 용수리 해안에 상륙했지만 해상

차단은 없었고, 주민 신고를 통해 밀입국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3월 소형선박으로 중국 청다오에서 출발해 제주 환경면 판포리 해안에 상륙한 중국인 2명 역시 해상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다른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과정에서 밀입국 사실이 드러났다.

소형선박은 레이더로 식별하기 어렵고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 역시 소형 고부트 등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해경의 입장이다. 해상 감시만으로 밀입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사면이 바다인 제주 해안 경비에 구멍이 뚫려서는 안 된다. 레이더와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 또 관련기관과의 정보 공조체계를 강화해 밀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고도의 해안 경비 시스템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

해녀 복지 악용 ‘가짜 해녀’ 아직도 있나

제주도가 ‘가짜 해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2019년 해녀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례를 적발한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년간 해녀증을 소지한 만 65세 미만 전직 해녀를 중점 조사해 57명을 ‘가짜 해녀’로 판명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한 제주도의회는 행정과 수렴의 관리 감독 부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으며 시스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실태 조사는 제주도의원과 어촌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가짜 해녀’가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진행하게 됐다. 물질 경험 이 없는데도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 해녀증을 이용한다는 거였다. 2006년 제주에서는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바다에서 고된 어

업 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해 해녀들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주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가짜 해녀’이 같은 해녀 복지를 악용한 결과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는 물질 작업의 지속 가능성, 약자에 대한 배려, 생태주의적 요소 등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발전 모델을 보여주며 세계가 주목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가짜 해녀’ 문제가 기후 위기 등 바다 환경의 세찬 변화 속에 어쩔사리 명맥을 잇고 있는 해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번 더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직 해녀 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현실 속에 들러온 ‘가짜 해녀’ 실태 조사 소식은 씁쓸함을 안겨준다.

열린마당

성공적인 전국체전의 시작은 안전이다



이희철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10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선수단과 관람객을 맞이하는 전국체육대회의 무대가 된다. 이러한 축제가 성공적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화려한 행사 못지않게 반드시 갖춰져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안전이다. 출입구와 이동 동선, 관람석 진입로, 대중교통 이용 구간 등에서는 작은 혼잡도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규모 행사의 안전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예방에서 시작된다.

제주자치경찰도 전국체전의 성공

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관리와 인파 안전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단계별 교통 소통 대책을 면밀히 관리해 불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해 참가자와 관람객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국체전은 제주를 전국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이자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다. 선수들의 열정과 도민의 환대,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우러질 때 이번 전국체전은 더욱 성공적인 행사로 기억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도 도민과 방문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전과 교통을 촘촘히 챙기며 참가자와 관람객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뉴스-in

민방위 창설 51주년… 지역 안전 역량 강화

30일 창설 기념행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민방위대 창설 51주년을 맞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5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

이번 기념식에서는 민방위업무 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소방 관계자가 교관으로 참여한 응급처치 요령과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재난 발생 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살피고 도움을 전하는 민방위대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 등 평소 위기 대응역량을 교육 등 평소 위기 대응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

오소범기자

산불 방지도 AI로 고도화

○…서귀포시가 효율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3억7500만원을 투입해 고도화된 ‘AI 기반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전격 도입.

미악산과 고근산 등 지역 내 주요 산불취약지역 9개소에 설치된 산불감시 CCTV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연계, 이를 통해 24시간 공백 없는 ‘감시·감지·알림’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

시는 “AI 기반 ICT 플랫폼 도입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 전에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언급.

백금탁기자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6년 9월 23일 주주전원 서면결의에서 자본의 총액150,000,000원(중금149,5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 금50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현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 15,000주 중 14,950 주의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임의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를 5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 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하며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지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주식회사 미르전기

제주시 애월읍 반대동2길 20
사내이사 최운철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릉2리 응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 토박이

제주산담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